

NOVEMBER
2021

M

LUXURY



sisley
PARIS



BELLE EPOQUE COLLECTION
DAMIANI.COM

롯데 에비뉴엘 본점 02 2118 6131 •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 3213 2141 • 롯데 부산점 051 810 4165 • 롯데 동탄점 031 8036 3619
 신세계 본점 02 310 1533 • 신세계 강남점 02 599 1924 • 신세계 대구점 053 744 1924 • 신세계 대전점 042 607 8110
 현대 본점 02 515 1924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79 • 현대 대구점 053 660 3040

DAMIANI

HANDMADE IN ITALY SINCE 1924



<LUXURY M>은 2016년 창간 이래
최고의 프리미엄 매거진 <LUXURY>의 기획과 진행으로
<매일경제>의 주요 지국과 <LUXURY> 독립 배본망을
통해 배포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잇는
시티 라이프스타일 미디어입니다.

luxury.designhouse.co.kr

<럭셔리M>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luxuryeditors

<럭셔리M> 에디터가 직접 올리는 생생한 온라인 취재 현장

luxuryeditors

<럭셔리M> 에디터가 만드는 아름답고 감각적인 '사진 뉴스'



SISLEYA L'Integral Anti-Age Radiance Serum

노화로 인해 광채를 잃어가는 피부를 위한 '시슬리아
랭테그랄 양티-아주 래디언스 세럼'. 란시움 추출물
등 다양한 식물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다크스
팟을 예방하고, 칙칙한 피부 톤을 맑고 화사하게 가꿔
준다. 콩 펩타이드 추출물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
는 결과 피부 밀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어느
각도에서 봐도 탄력이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CONTENTS



04 HEAD TO TOE

이달에 알아야 할 정보와 트렌드

06 BUY NOW

시원하고 청량한 가을날과 어울리는 패션·뷰티 아이템

08 INNOVATOR

AI 기반 와인 정기 구독 서비스, 퍼플독 박재정 대표

10 TREND

신화나 고전 영화 속에 등장할 법한 엔틱 액세서리

14 COSMETICS

찬 공기에 고통받는 피부를 지켜줄 스킨케어 루틴

18 CAR

업사이클링과 바이오 소재로 만든 지속 가능한 자동차

20 GAME

차세대 레이싱 게임 전쟁을 이끄는 2개의 신작 프리뷰

22 CULTURE

윤영천이 발간한 장르 입문서 <미스터리 가이드북>

24 DESIGN SPOT

여행 감각을 깨우는 서울의 이국적인 카페 4



EDITORIAL

편집 02-2262-7437

편집장 윤정은 Jungeun Yoon · yoon29@design.co.kr

FASHION

기자 홍혜선 Hyesun Hong · hhs@design.co.kr

기자 최윤정 Yoonjung Choi · yj.choi@design.co.kr

BEAUTY

기자 이지형 Jihyung Lee · jh.lee@design.co.kr

LIVING/FEATURES

수석기자 김수진 Sujin Kim · jin@design.co.kr

기자 안서경 Seogyong Ahn · seo@design.co.kr

기자 한동은 Dongeun Han · dehan@design.co.kr

미술장 손익원 Ikweon Sohn · bart@design.co.kr

디자이너 홍수연 Sooyoun Hong · syhong@design.co.kr

김보성 Bosung Kim · today17@design.co.kr

포토 디렉터 이우경 Wookyoung Lee · watt@design.co.kr

포토그래퍼 이기태 이경옥 이창화

Tone Studio 디렉터 염정훈 Junghoon Yum

포토그래퍼 황인우 Inwoo Hwang

교정·교열 전남희 Namhee Jeon

ADVERTISING

광고 02-2262-7401

유통 관리 02-2262-7407

정기구독 080-007-1200

이사 이경호 Kyongho Lee · paradise@design.co.kr

부장 김수진 Soojin Kim · kimsoojin@design.co.kr

대리 강성민 Sungmin Kang · smo714@design.co.kr

유통 관리 매니저 송은우 Eunwoo Song · ewsong@design.co.kr

부장 이진태 Guntai Lee · guntai77@design.co.kr

부사장 김은령 exlibris@design.co.kr

DESIGN HOUSE INC.

디자인사업부문장 이민형 디자인프레스(주) 대표 겸직 lucy@design.co.kr

전시사업부문장 조상연 이사 Sangyeon Cho · csy@design.co.kr

경영전략부문장 이영임 상무 Youngim Lee · yilee@design.co.kr

법률 고문 김영철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KCL)

회계 자문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발행인 이영혜

2021년 11월호 통권 제61호 2016년 10월 12일에 등록

등록번호 서울 중 라-00650. 2021년 9월 28일 발행(매월 발행)

발행 공급처 (주)디자인하우스(02-2275-6151)

필름 출력 (주)에이디코아(02-323-6493)

인쇄처 M-print(031-8071-0960)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이 잡지의 일부 기사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GIVENCHY

I AM N°37

NEW

LE ROUGE
SHEER VELVET



HEAD TO TOE

차고 건조한 바람이 파고드는 11월.
이 계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패션 & 뷰티 신제품과 유익한 전시,
그리고 행사장에 나타난 셀러브리티까지.
흥미롭고 다채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글 이지형(LJH)·최윤정(CYJ)·한동은(HDE) 기자

SPECIAL MATCH



GENTLE MONSTER 스타일리스트 정윤기와 함께하는 아이웨어 컬렉션이 탄생했다. 이를 기념해 하우스 도산 매장을 푸른색 곰 캐릭터로 장식했는데, 이는 그의 마스코트인 곰과 하우스 도산 매장의 주요 컬러인 푸른색을 결합한 결과물이다. 문의 070-4128-2122

MULBERRY 브랜드 창립 50주년을 맞아 디자이너 리처드 멀론과 협업한 한정판 캡슐 컬렉션을 출시한다. 기존 클래식 백을 새로운 형태인 '트라이앵글 베이스워드' 백과 원통형의 '베럴' 백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3438-6140

CHLOÉ 클로에와 문 부츠의 협업은 가브리엘라 허스트가 끌로에 하우스의 수장이 된 후 처음 선보이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다. 문 부츠만의 투박한 실루엣과 끌로에 특유의 차분한 감성이 조화를 이루며, 시어링 소재와 등산화에서 영감을 받은 신발 끈이 돋보인다. 문의 6905-3670

JIMMY CHOO 10월 12일 뚜렷한 관점을 지닌 3명의 '비저너리(비전 제시자)'들이 참여한 협업 컬렉션이 공개됐다. 뉴욕의 아티스트 에릭 헤이즈와 일본의 패션 아이콘 포기, 지미 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샌드라 초이가 이번 프로젝트의 선봉자들이다. 문의 3438-6107 (CYJ)

DISNEY+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심슨 가족 등 세계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가 11월 12일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10월 14일 한국 디즈니+ 론칭에 앞서 APAC 콘텐츠 쇼케이스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곳에서 7편의 한국 콘텐츠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규 콘텐츠 20편을 공개하며 기대를 모았다. 배우 정해인과 블랙핑크 지수 주연의 멜로 드라마 <설강화>, 강풀 웹툰을 원작으로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이 출연하는 드라마 <무빙>이 특히 화제다. 구독료는 월 9900원 또는 연간 9만 9000원이며 모바일, 태블릿 기기, 스마트 TV 등에서 시청 가능하다. (HDE)

NEW MAKEUP PO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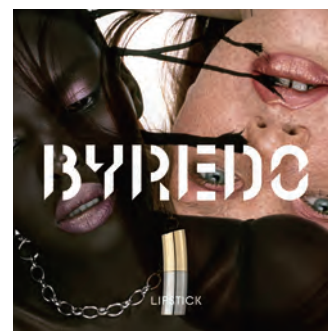
NARS

선명하게 발색되며 즉각적으로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에어 매트 립 컬러'에 6가지 새로운 컬러가 추가된다. 공기처럼 가벼운 제형 덕에 하루 종일 입술이 편안하다. 문의 6905-3747



CLI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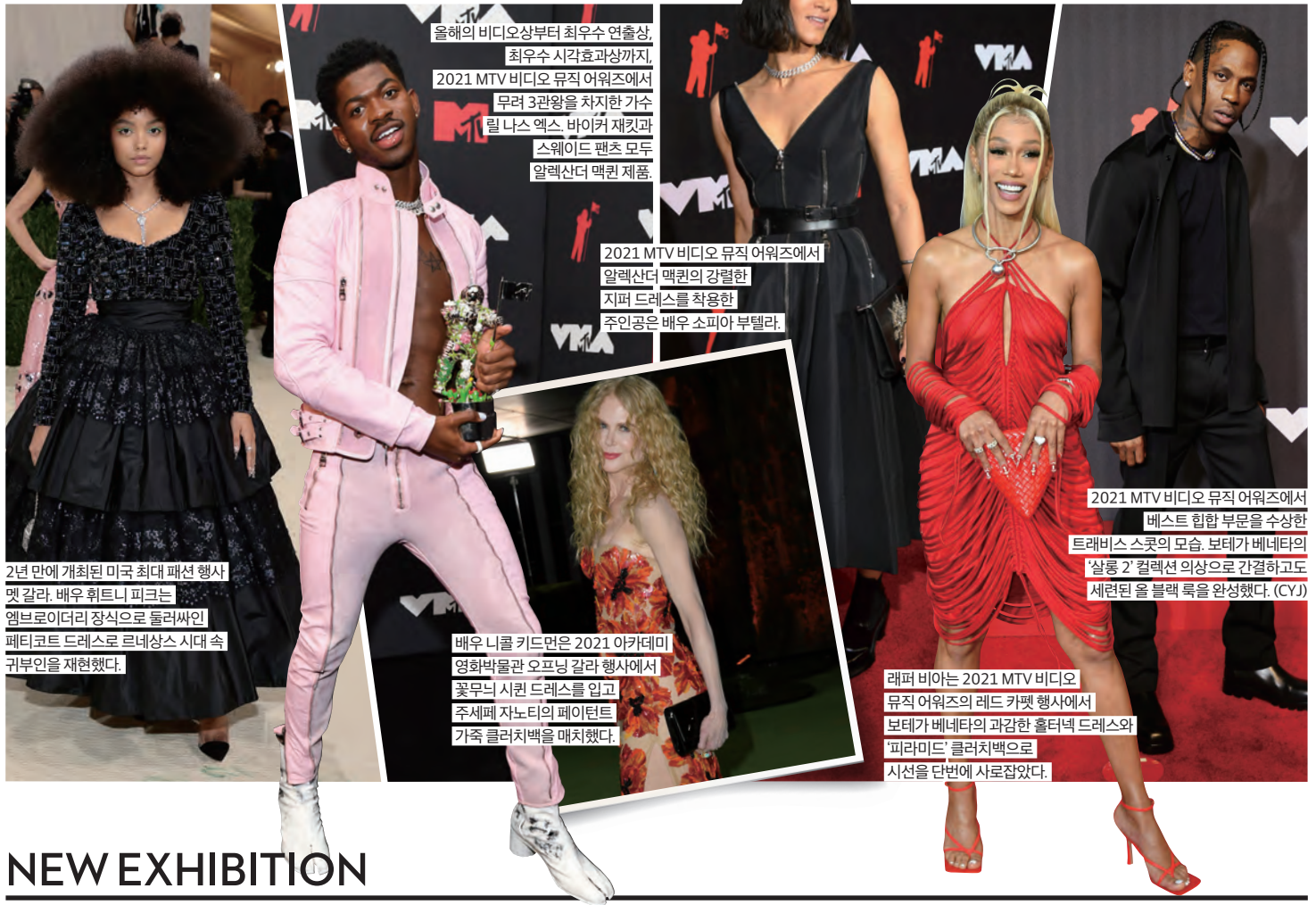
양 볼을 자연스럽게 물들이며 생기를 더하는 하이브리드 블러셔-라이터 '치크팝 펄 리미티드'를 출시한다. 문의 3440-2773



BYREDO

매끄럽게 발리면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입술을 완성하는 '쉬머링 누드 립스틱'을 소개한다. 퍼플 핑크, 엔틱 로즈 등 4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3479-1688 (LJH)

CELEBRITIES AT THE EVENT



NEW EXHIBITION



<드림러, 3:45am> 요즘 가장 주목받는 5명의 뮤지션과 5명의 현대미술 작가가 모였다. 이들이 각각 짝을 지어 꿈을 주제로 5개의 공간을 풀어낸 것. '꿈의 형태'를 표현한 아티스트 패브리카와 프로듀서 코드쿤스트, '시간이 멈춘 고요한 공간'을 그려낸 UVA와 DJ 페기 구 등이 그 주인공이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사운드 아티스트 임용주는 전시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며 꿈으로 이어지는 전시의 여정에 동행한다. 이들 10팀이 현대미술과 사운드를 주제로 구현한 각기 다른 꿈의 형태는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공감각을 깨우는 전시는 9월 30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진행된다. 롯데뮤지엄.



<Not Enough Words> 파운드리 서울에서 뉴욕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 이 건 프란츠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 공개된다. 2010년도 초반부터 이번 개인전을 위한 신작까지 약 10년간 이어온 작가의 행보를 따라 걸을 수 있는 특별한 전시다. 지하 1층의 1전시관에는 활동 초기 주된 작업이던 조각과 설치, 퍼포먼스로 완성한 평면 작품이 공간을 채운다. 특히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는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데 골몰해왔다. 지하 2층에서는 작가가 최근 가장 몰두하고 있는 추상회화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역동적인 붓질과 활기찬 색감이 돋보인다. 10월 7일부터 12월 19일. 파운드리 서울. (HDE)

BUY NOW

허리 부분에 꼬임 디테일을 적용한
'마이저' 미니드레스.
스텔라 맥카트니(3442-2440)

LV 이니셜을 각인한 스토퍼가 달려 있어
스트랩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LV 콜라주' 마스크 커버.
루이 비통(3432-1854)

스코틀랜드 출신 화가 피터
도이그 Peter Diog와 협업해 만든
'새들 디올 앤 피터 도이그' 백.
디올 맨(3480-0104)

플라워 패턴과 호피 무늬의
이색적인 조합이 돋보이는 카디건.
블루마린(6905-3447)

Victoria Beckham

PATTERN ON PATTERN

고유의 패턴들이 제각기 개성을 발산하는 '패턴 온 패턴' 스타일링.

진행 최윤정 기자 | 사진 엄정훈 | 어시스턴트 차보금

45x45cm 크기의 실크 트윌 포켓 스퀘어.
흰색 셔츠와 감청색 슈트에
매치해보자. 앤 아서 by 미스터포터
(0079-8611-0034)

5cm 굽을 장착한 꽃무늬 '베이로우' 부츠.
지미 추(3438-6107)

Louis Vuitton

복합적인 패턴 위로 모노톤 로고 패치가
시선을 사로잡는 바머 재킷. 에트로(511-2573)

색색의 체크 패턴으로 물든 숄 코트.
폴로 랄프 로렌(6004-0220)

바이올렛으로 시작해 장미로 이어지며
바닐라, 앰버 향으로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우드 사틴 무드 오드 퍼퓸'.
메종 프란시스 커점(514-5167)



Christian Dior

꽃과 흙 그리고 파우더리한 머스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향을
완성하는 '에레미아 오드 퍼퓸'.
이습(1800-1987)



부드러운 무화과 향을 중심으로
베티베르, 시더우드,
비터 오렌지 향이 감도는 '떼 마차 26'.
르 라보(3440-2591)



달콤한 카시스를 시작으로
중성적인 느낌의 버치 우드,
파피루스 내음이 이어지며 깊이 있는
향을 전하는 '믹스드이모션 오드 퍼퓸'.
바이레도(3479-1688)



바이올렛 잎사귀, 감초 뿌리를
시작으로 흙 내음이 가득한 샌들우드,
베티베르로 이어지는 '루흐 베르트'.
킬리안(3440-2923)



따뜻한 머스크, 달콤한 초콜릿 향이
어우러지며 몽환적인 향취를 전하는
'레 텍스트레 콜레시옹 코스믹 클라우드'.
루이 비통(3432-1854)



Balenciaga



시더우드, 톱카 빈 그리고 주니퍼 베리가
조화를 이루며 감각적인 향을 완성하는
'오르페옹 오드 퍼퓸'. 디пти크(3479-6049)



레더를 중심으로 시더우드,
바이올렛 향이 어우러진
'툼 포드 옴브레 퍼퓸'.
툼 포드 뷰티(6971-3211)

AUTUMN BREEZE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가을, 공기를 따스하게 감싸줄 8가지 향기를 모았다.

진행 이지형 기자

퍼플독 박재정 대표

와인을 향유하는 새로운 방법

팬데믹 이후 아카데미나 동호회를 통해 와인을 탐구하고 즐기는 방식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AI 분석을 통해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을 골라 매달 배송해주는 서비스, '퍼플독'은 간편하고 재미있게 와인을 알아가는 방식을 제안한다.

글 안서경 기자 | 사진 이석영



오늘날 와인 산업은 전통적인 영역일까? 와인 생산자들은 포도밭에 센서를 달아 나무의 발육 상태를 체크하고, 앱을 통해 발효 과정을 조절하며, 가상 와이너리 투어를 열어 첨단 농업 기술의 최전선을 달린다. 기호 식품의 끝에 자리한 산업인 만큼, 기술을 활용한 추천 서비스 또한 다양하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와인 등급 앱 '비비노Vivino'를 비롯해 중국의 '주카차9kacha', 영국의 '네이키드 와인' 등이 대표적이다.

퍼플독은 국내 여러 테크 기반 와인 앱 가운데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 론칭해 유일한 와인 정기 구독 서비스를 표방하며,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와인을 골라 배송해주는 스타트업이다. 받아본 와인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뒤 다른 회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매달 와인을 재매칭하며, 더욱 정교하게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을 제안한다. 테이스팅과 관련한 다채로운 콘텐츠도 수반한다. 생산지, 적정 테이스팅 온도, 테이스팅 방법 등 와인에 관한 정보를 쉽게 풀이한 카드를 함께 배송하고, 앱으로 오디오 도슨트 기능을 제공해 와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하는 수량은 상담 후 결정할 수 있고, 가격대는 3만 원대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와인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야예요. 기후, 토양, 지역 등 다양한 변수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맛을 알아가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와인을 공부하듯 알아가는 풍토를 일상적인 문화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머지 않아 회원수 1만 명을 앞둔 퍼플독 박재정 대표의 말이다. 퍼플독 서비스의 구독 유지율은 약 94%, 이탈률은 약 6%. 매달 10% 이상 인원이 신규 구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구독 서비스는 무엇보다 유지 비율과 신규 비율이 중요한데, 이 점에서 꾸준한 성장이 엿보인다. “주로 와인을 알아가고 싶은 MZ세대 이용자가 많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 이용자의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비는 약 6:4 비율 정도예요. 자체 기준으로 각 와인의 맛에 따라 1부터 10까지 강도를 나누었는데, 저희 서비스의 이용자는 레드 와인을 훨씬 선호하고, 당도가 적은 드라이한 맛의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생소한 와인 산지를 아우르는 실험

법학을 전공하고, 오랜 기간 현대그룹, 매일유업 등 소비재 기업의 법무팀에서 일해온 박재정 대표는 설레고 좋아하는 일을 좇다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다. 프랑스 와인 아카데미 디플로마를 취득하고, 당시 함께한 팀원들과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 이 같은 다양한 이력이 '와인 정기 배송'이라는 불모지를 개척하게 만들었다. 현재 주세법상 우리나라는 온라인 주류 구매가 불가능한 탓에 와인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와 추천받는 서비스가 양분되어 있다. 대형 수입·유통사들은 앱으로 주문을 받고 인근 매장에서 와인을 픽업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와인을 추천하는 취향 기반 앱은 다양하지만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퍼플독은 오프라인 스토어를 병행해 운영하며 오프라인을 통한 결제로 정기 배송



1 홍대 인근에 자리한 퍼플독의 오프라인 스토어. 세계적 호텔에 납품되며 프랑스 루시옹 지방에서 정통 양조 방식으로 만든 '피에르 제로'도 국내에 소개한다.
2 와인은 물론 관련 콘텐츠도 함께 담아 배송한다.

박재정 20년간 기업 법무 전문가로 일해왔다. 취미로 시작한 와인 공부를 비즈니스로 이어 국내 최초 AI 추천 기반 와인 구독 서비스 '퍼플독'을 론칭했다. 약 200여 종 이상의 독점 수입 와인과 무알코올 와인 등을 소개하며 와인 유통시장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한화생명 등 여러 기업과 제휴도 활발하다.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스토어에서는 수 십가지의 와인 향을 맡고, 테이스팅도 할 수 있다. 기존 수입사와 관계를 맺는 것에서 나아가 소싱 팀을 구축해 국내에서 맛보기 어렵던 지역의 와인도 소개하며, 독점 수입한 와인을 늘려가고 있는 점도 특징. 올해 1월부터 약 200여 종에 달하는 독점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무알코올 와인, 보르도 와인부터 조지아-레바논 지역 와인까지 생소한 제품도 아우른다. “비싼 가격의 와인도 좋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기존 와인 주 생산지가 아닌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한 뛰어난 밸런스의 참신한 와인들을 선보이고 싶어요. 최근에는 레바논 와인을 수입했는데 강렬한 풍미에 매료됐습니다. 레바논은 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와인을 생산해왔어요. 전시 상황에 와인을 보존하기 위해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들로 와인 수입처를 이동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세상에 우리가 마셔볼 와인이 무궁무진하단 걸 또 한번 깨달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와인 전문 시장조사업체 와인인텔리전스는 최근 한 리포트에서 한국을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매력적인 와인 시장으로 꼽았다. 매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와인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메가존 등 AI 클라우드 기업들과 더욱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협업 중이에요. 와인 애호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 요즘, 더 많은 사람이 와인을 탐구하고, 향유하며 즐겨 찾는 서비스가 되길 꿈꿉니다.”

ANTIQUE COLECTION

신화나 고전 영화 속에 등장할 법한 앤티크 액세서리.

EDITOR CHOI YOONJUNG PHOTOGRAPHER LEE GITAE



미술가 피에로 포르나세티Piero Fornasetti의
상징적인 조각상 초상화에서 착안한 '포세트 테트' 핸드백은 루이 비통.
3가지 펜던트를 단 뱅글 브레이슬릿과
메탈, 스트라스, 글라스 소재로 완성한 브레이슬릿 모두 샤넬.
전면에 수놓은 크리스털 장식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핑거 컷 장갑은 구찌.

이브닝드레스에 매치하면 좋을 리본 모티프의 '마리 안느' 물은 크리스찬 루부탱.
DG 로고를 중심으로 펄과 장미 장식이 어우러진 체인 네크리스는 돌체 앤 가버나.
스페인 아틀리에에서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에타' 울 펠트 모자는 헬렌카민스키.



9cm 굵을 장착한 '알라리아' 새틴 물은 마놀로 블라닉.
추상적 형태가 인상적인 '모노 펜던트' 이어링은 발렌티노 가라바니.
16×12.5×4cm 크기의 타원형 크로스 보디 백.
트리옴페 로고를 따라 흰색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다. 셀린느.





포르나세티 도자기의 광택을 연상시키는 페이턴트 송아지 가죽 소재의 '간느' 핸드백은 루이 비통.
 팔라둠으로 마감한 니켈 프리 소재와 인조 크리스털을 조합한 '미우 파베 밴드' 링은 미우 미우.
 메탈 버클이 특징인 스웨이드 벨트는 에트로 모노톤 실크 스카프는 디올.

어시스턴트 차보금 | 제품 협조 구찌(1577-1921), 돌체 앤 가바나(3442-6888), 디올(3480-0104),
 루이 비통(3432-1854), 마놀로 블라닉(3443-2113), 미우 미우(3218-5331), 발렌티노(543-5125), 샤넬(080-200-2700),
 셀린느(549-6631), 에트로(511-2573), 크리스찬 루부탱(541-8550), 헬렌카민스키(3444-6593)

WINTER ESSENTIALS

각질과 노폐물을 정돈해 피부 바탕을 깨끗하게 한 뒤,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겨울 스킨케어 루틴으로 피부를 지켜보자.

글 이지형 기자 | 사진 염정훈



Exfoliating

건조한 공기,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모공 속에는 노폐물이, 피부 표면에는 불필요한 각질이 쌓이기 쉽다. 민감한 피부라면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을, 건강한 피부라면 리퀴드나 세럼 타입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면 피부를 매끄럽게 가꿀 수 있다.

익스트림 화이트 필링 스노우 비타민™, 미라클 화이트 플라워 성분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준다. 세안 후 얼굴 전체에 펴 바른 뒤 미온수로 마사지하며 씻어낸다. 오후, 인비저블 필링 부스터 모공 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각질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다음 단계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를 돕는다. 천연 보습 인자 NMF를 함유해 각질 제거 후에도 피부가 편안하다. CNP.

퓨리파잉 페이스 엑스폴리언트 페이스트 미세한 석영 입자와 젖산이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하고 로즈힙 오일, 캐머마일 오일이 수분과 영양을 더하는 각질 제거제. 사용 후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이슬.

바하 리퀴드 각질 제거제 BHA 성분이 모공 속 축적된 피지와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해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는 리퀴드 타입 각질 제거제. 알란토인 성분을 함유한 덕에 피부 진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플라초이스.



셀룰라 리뉴잉 스크럽 해바라기씨 오일, 락토바실러스 성분이
모공을 정화하고 각질을 정돈하는 스크럽. 일주일에 한두 번 클렌징 후
얼굴 전체에 바르고, 미온수로 마사지하며 닦아낸다. 스위스 퍼펙션.
포어레미디 파하 익스폴리에이팅 세럼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PHA 성분과
마카다미아 시드 오일이 피붓결을 매끄럽게 가꿔주며 노폐물을 정돈하는 세럼.
판테놀을 함유한 덕에 사용 후에도 피부가 건조해질 걱정이 없다. 닥터 자르트.
공진향 정화 마스크 피부 정화에 도움을 주는 연꽃 추출물, 미세한 입자가
각질을 제거하는 해금사를 함유한 마스크 팩. 얼굴 전체에 도통하게 바른 뒤
약 5분 후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부드러운 피부를 마주할 수 있다. 더 히스토리 오브.
디올 프레스티지르 슈크레 드 고마주 미세한 슈거 성분이
각질을 자극 없이 정돈하고, 로즈 드 그랑빌의 영양 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게 한다.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붓결이 즉각적으로 매끄러워진다. 디올.



Soothing & Nourishing

각질을 제거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거칠어진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각질 제거로 푸석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다독이는 오버나이트 마스크 팩이나
고농축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크렘 앙씨엔느 화이트 트러플 오버나이트 마스크 화이트 트러플 성분이
풍부한 영양을 전하며 약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오버나이트 마스크 팩.
자극받은 피부가 진정되는 것은 물론, 다음 날 아침 환해진 피부를 만날 수 있다. 프레쉬.
수블리마지 르 바움 버터처럼 진득한 제형이 피부에 닿는 즉시 진정과
보습 효과를 선사하는 고농축 밤. 바닐라 플레니폴리아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이 피부 광채와 활력을 되찾아준다. 샤넬.
디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 텍스처 리치 다마스크 장미 꽃 수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아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가라앉힌다.
고농축 제형으로 건조한 피부를 하루 종일 편안하게 지켜준다. 디올.



라-뉴트리브 얼티미트 리프트 리제너레이팅 유스 크림
 플로랄릭시아™ 듀 성분이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전한다. 부드럽고 빈틈없이 흡수되며,
 끈적이지 않아 겉돌거나 묻어날 걱정이 없다. 에스티 로더.
 라크렘므 280종 이상의 효모에서 추출한 세라퍼먼트 추출물,
 아이리스 추출물이 약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풍부한 영양을 공급한다. 플레드브 보떼.
 비침 자윤 크림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초자하비단과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청심비단 등 다양한 한방 성분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고농축 크림.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로시크숨마 엘릭서 크림 골든 엘릭서™ 성분이
 약해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고, 활력을 되찾아준다.
 영양이 풍부한 제형이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덕에
 피부가 건조할 틈이 없다. 숨37°.



제품 협조 플레드브 보떼(080-564-7700), 닥터 자르트(1544-5453), 더 히스토리 오브 후(080-023-7007), 디올(080-342-9500), 샤넬(080-332-2700), 숨 37°(080-023-7007), 스위스 퍼펙션(555-5152), 에스티 로더(6971-3212), 오휘(080-023-7007), 이슬(1800-1987), 폴라초이스(1661-6656), 프레쉬(080-822-9500), CNP(080-220-0707),

페페트병으로 만든 자동차

업사이클링, 바이오 소재의 접목이 자동차 업계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지속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브랜드의 고민과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글 유승현(게스트 에디터)

지난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에서 여러 자동차 브랜드가 리사이클링 소재로 만든 콘셉트 카나 이를 위한 장기 플랜을 공개했다. 자동차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축에 속하는 가죽 시트는 이미 비거니즘의 바람을 타고 진짜 가죽에서 인조가죽으로 교체되는 분위기다. 메르세데스-벤츠, 벤틀리, 아우디, 제네시스 등 많은 브랜드가 버섯이나 옥수수, 파인애플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성분의 친환경 가죽을 개발하거나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라인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투명 페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나 플라스틱은 이미 많은 모델에 적용돼 보편화되었다. 이제 자동차는 외관과 기관을 넘어 인테리어까지 에코 프렌들리의 길을 걷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 페페트병으로만 내부를 꾸민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릴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재의 접목 BMW

BMW는 자동차 내·외부에 천연섬유 매트, 플라스틱 매트릭스 복합 소재 등을 사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 배출량이 낮은 재활용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 비건 레더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IAA 모빌리티 2021에서는 100% 재활용 가능 소재만을 사용해 만든 순수 전기 자동차 'BMW i 비전 서클러'를 공개했다. 재활용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소재를 접합할 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조립 형태를 추구하고, 부품 폐기 최소화를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최대한 접목했다.



재활용 소재만을 사용해 만든 순수 전기 자동차 'BMW i 비전 서클러'.

볼보는 2025년까지 신차 내부 소재의 25%를 탄소 배출이 낮은 바이오, 재활용 제품으로 꾸릴 예정이다. 페페트병이나 숲에서 얻은 바이오 기반의 식물 또는 와인 업계에서 리사이클링한 코르크 소재를 신차 인테리어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 복지에 힘쓰는 것이 볼보의 목표인데, 2030년까지 자동차 내장재 등에 동물 가죽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보는 올해 출시한 순수 전기차 'C40 리차지'를 시작으로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을 점차 늘릴 예정이다. 또한 볼보는 2030년부터 전기차만을 생산하며, 동물과 자연까지 생각하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넓히고자 한다.

비건 프렌들리 Volvo



'C40 리차지'는 볼보의 첫 순수 전기차로 재생 플라스틱과 페플라스틱 원사를 인테리어에 사용했다.

포드는 일찍부터 업사이클링 소재를 자동차에 접목했다. 2012년 처음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260도의 고열로 처리해 바닥에 까는 매트를 만들었고, 같은 해 출시한 전기 자동차 모델의 좌석 시트 또한 폐산업용 섬유와 폐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한 소재를 혼합해 제작했다. 2014년에는 '에코부스트 테크놀로지'를 목표로 삼고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업사이클링 소재의 접목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소형 SUV 모델 '에코 스포츠'의 바닥 매트를 만들기 위해 500ml짜리 플라스틱 페트병 6억5000만 개를 사용했는데, 차량 한 대에 페트병 470개가 들어간다. 최근에는 프린터 브랜드 HP와 손을 잡고 업계 최초로 3D 프린팅 폐기물을 다시 사출, 성형해 자동차 부품으로 탈바꿈할 계획을 드러냈다. 부품은 트럭 모델에 적용할 예정인데 기존 제품 대비 내화확성이나

내습성이 우수하고 7%가량 더 가벼우며 비용도 10% 더

저렴하다. 포드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료를 찾아 순환 경제를 개발하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포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양광 스테이트 및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생산에도 투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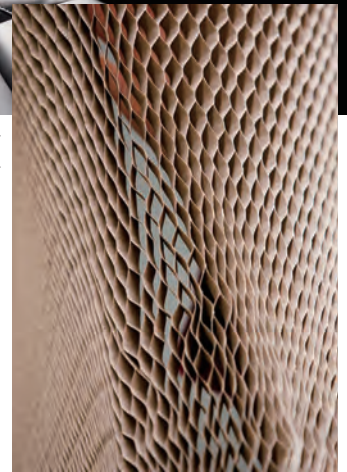
업사이클링 소재의 선구자

Ford



5년 전 출시됐음에도 재활용 소재를 적극 개발, 적용한 '에코 스포츠'.

트렁크 내 카고 선반에 벌집 모양으로 만든 재활용 종이를 사용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단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자동차 한 대에 최대 페트병 32개를 재활용하는 '아이오닉 5'.



패션 업계까지 확장하는

Hyundai

올해 초 출시한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좌석 시트 일부와 문 쪽 팔걸이에 투명 페트병을 분쇄, 가공해 만든 직물을 사용했다. 자동차 한 대에 페트병 최대 32개를 재활용한다. 또 시트, 헤드라잉, 카펫에는 사탕수수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성분을 함유한 패브릭을 적용했으며 인테리어에 사용한 가죽은 동물성 기름이 아닌 아마씨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이용해 염색했다. 도어 역시 100% 재사용이 가능한 페이퍼렛 Paperette™ 소재를 활용했는데, 페이퍼렛은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인 HDPE로 만든 소재로 한지와 동일한 가벼움과 질감을 지닌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에서 그치지 않고 최근 안전벨트, 에어백 등의 자동차 폐기물과 아이오닉 5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패션 프로젝트 '라:스타일 2021'도 전개한다. 재킷, 후드, 바지 등을 출시했다.



'아이오닉 5'의 친환경 소재와 자동차 폐기물을 접목하는 패션 프로젝트 '라:스타일 2021'.



차세대 레이싱 게임 전쟁

두터운 팬층을 가진 레이싱 게임의 두 거목, 그란투리스모와 포르자 시리즈의 신작이 차세대 콘솔로 발매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승부는 생각보다 쉽게 갈릴지도 모른다.

글 이기원(게스트 에디터)



패턴화된 일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막상 차를 몰고 어딘가로 떠난다는 건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라 주저하기 일쑤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레이싱 게임이다. 사고의 위험 없이 내가 원하는 차를 타고 마음껏 스피드를 즐길 수 있으니. 요즘 레이싱 게임들은 그래픽이 실사처럼 뛰어나 전용 레이싱 휠과 거치대만 있다면 얼마든지 즐거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차세대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 5(PS5)와 엑스박스 시리즈X(XSX)를 대표하는 레이싱 게임 그란투리스모와 포르자 시리즈가 신작 발매를 앞두고 있다. PS5용 '그란투리스모 7', XSX용 '포르자 호라이즌 5'가 그것이다. 차세대 기기로 나오는 만큼 더욱 사실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게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미리 살펴봤다.

그란투리스모 7

PS5, 2022년 3월 출시 예정

플레이스테이션(PS) 진영을 대표하는 레이싱 게임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란투리스모다. '리얼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표방하며 등장한 그란투리스모 시리즈는 놀라운 현실감으로 게이머들은 물론 자동차 애호가들까지 감동시켜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란투리스모의 신작은 올가을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인력 투입의 한계로 계속 발매일이 미뤄져왔다. 기다림에 지친 팬들을 위해 제작사는 지난 9월 중순 유튜브로 그란투리스모 7의 최신 트레일러를 공개함과 동시에 게임의 발매일도 2022년 3월로 확정했다.

그란투리스모 7은 2017년 발매한 전작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개발 기간이 꽤 길었다는 점, 차세대 콘솔로 출시된다는 점 때문에 팬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트레일러만 보자면 다소 실망스럽다. 새로운 유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연을 넓히기보다는 이전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모양새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전작들의 인트로를 오마주하는 장면을 이번 트레일러

에 반영한 것이 그 예다.

여전히 PS4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래픽은 어떤가. 그란투리스모는 트랙 드라이빙을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딱히 배경이 필요 없지만, 그래서 더욱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한눈에 유저들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강력한 그래픽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경쟁자인 포르자 시리즈가 신작을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그래픽을 선보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더욱 그래야 했다. 하지만 현재 트레일러에 공개된 바로는 굉장히 아쉬운 그래픽 퀄리티를 보여준다. 특히 차량 인테리어의 초라한 디테일은 실망의 수준을 넘어선다. 현재까지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걸로 보서는 시리즈 내내 지적돼온 '플레이 가능한 차종이 부족하다'는 약점 역시 그대로일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레이싱 게임의 본질은 실제 차가 달리는 느낌을 최대한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다. 누적 판매 8000만 장이 넘는 그란투리스모 시리즈의 엄청난 인기도 실제 차를 모는 듯한 정교한 현실감 때문

차세대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 5



이었다. 정작 본 게임을 플레이해본다면 지금의 실망감이 바뀔지도 모른다. 게다가 PS5에는 '듀얼센스'라는 최고의 컨트롤러도 있으니.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게이머들의 눈도 훨씬 높아졌으며, 리얼 드라이빙을 강조하는 게임도 크게 늘었다. 그란투리스모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란투리스모 7이 올드 팬을 위한 추억팔이로 끝날지, 리얼 드라이빙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지는 5개월 후에 확인할 수 있다.

포르자 호라이즌 5

XSX, 2021년 11월 9일 출시 예정

게임 비평 사이트 메타크리틱에 올라온 포르자 호라이즌 4에 대한 평가 중 하나를 소개한다. "포르자 호라이즌 4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 가능하다. 걸작masterpiece."

레이싱 게임이 이런 평가를 받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직접 플레이해본 게이머라면 지나친 현사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PS 진영에 그란투리스모가 있다면 엑스박스 진영에는 포르자 시리즈가 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란투리스모 시리즈가 잠시 주춤하던 사이 포르자 시리즈는 놀라운 그래픽과 접근성 높은 플레이 스타일로 순식간에 최고 레이싱 게임의 타이틀을 앗아갔다.



올해 11월 9일로 발매 일정이 확정된 포르자 호라이즌 5는 극찬을 받은 4편의 후속이다. 리얼 드라이빙을 최대한 게임 속에 구현하려는 그란투리스모와 달리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는 좀 더 게임적인 쾌감을 추구한다. 좀 더 조작이 쉽고, 초심자라 해도 게임에 쉽게 다가설 수 있다는 뜻이다.

오픈월드를 추구하는 포르자 호라이즌 5의 배경은 멕시코다. 멕시코는 실제로 아름다운 도시와 눈 덮인 산, 아찔한 협곡, 바다와 정글, 사막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트레일러를 통해 공개된 주행 영상은 기대 이상의 수준이다. 멕시코의 다양한 풍경이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유저는 게임 내내 이 놀라운 풍경 속을 자유롭게 헤집고 다닐 수 있다. 선택 가능한 차량도 500대 가까이 된다. 메르세데스-AMG '원', 포르쉐 '타이칸' 등의 신형 차량이 대거 등장하는 것도 특징.

또한 "유저가 노면 상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게임상에서 차량의 서스펜션 구현에도 신경 썼다. 차량이 지형에 반응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작진의 설명을 들으면 정말이지 기대를 감출 수가 없다. 실제 게임이 트레일러만큼만 나온다면,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올해 최고의 게임에 등극할지도 모른다. 한 달만 기다려보자.

또 다른 경쟁자

위의 두 게임을 기다리기 힘들다면 먼저 출시한 이 게임들을 즐겨봐도 좋겠다.



F1 2021(PS5, XSX) 지난 7월 발매한 'F1 2021'은 F1의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레이싱 게임이다. 전작도 꽤 호평을 받았지만, 차세대로 나온 신작은 그래픽이나 사운드 등이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 신작에서는 스토리 모드가 추가됐는데, 유저는 19세 신인 선수가 되어 팀의 베테랑은 물론 다른 팀 드라이버들과 경쟁하며 최고 자리에 올라야 한다.



WRC 10(PS5) 트랙 레이싱의 대표가 F1이라면公道 레이싱의 대표 격은 월드랠리챔피언십(WRC)이다. 지난 9월 발매한 'WRC 10'은 전 세계 각지의 다양한 풍경과 지형을 신나게 드라이브할 수 있어 보는 재미가 더하다. 다소 아쉽던 현실감이 이번 판에서는 많이 개선됐다. 커리어 모드도 크게 발전했는데 차량의 다양한 커스텀은 물론이고 일일 과제, 주간 과제 등으로 유저를 자극시킨다.



MotoGP 21(PS5, XSX) 최고의 자동차 경주는 F1, 최고의 모터사이클 경주는 모토GP다.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부족하지만 전 세계로 보자면 상당히 많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대회다. 지난 4월 차세대 게임기로 나온 '모토GP 21'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리 엔진이 개선되어 훨씬 현장감 넘치는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유저라면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



MYSTERY GUIDE

하우미스터리 사이트(howmystery.com)의 운영자이자
미스터리 소설의 기획자 겸 편집자로 활동하는 윤영천.
오랫동안 국내 미스터리 소설 애호가들 사이에서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해온 그가 최근 <미스터리 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장르 입문서를 발간했다.

글 박지혜(게스트 에디터) | 사진 염정훈

윤영천의 <미스터리 가이드북>에는 “한 권으로 살펴보는 미스터리 장르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취향에 따라 읽어가면 될 ‘미스터리 소설’에 무슨 개론서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책장을 넘기는 순간 가뿐히 해소된다. 작가 제프리 디버의 말을 빌려 “미스터리”는 일어난 사건이고, ‘스릴러’는 일어날 사건이다”라는 무릎을 칠 만한 정의를 내리는 한편, 미스터리 장르가 전제하는 소설적 구조와 규칙, 그리고 여전히 건재한 창작의 기법들을 일목요연하게 모아 소개한다. 시대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독자와 작가의 치열한 지적 밀당으로 전개되는 독보적인 문학 장르 미스터리. 이 책은 그 입구로 진입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든든한 마스터 키와 같다. 이대 앞 미스터리 전문 서점 ‘미스터리 유니온’에서 한 손에 프리드리히 뉘렌마트의 소설을 쥔 채 등장한 윤영천 작가를 만났다.

우리나라는 크게 순문학과 장르 문학으로 문학 장르를 구분한다. 장르 문학 안에도 ‘미스터리’ 아래에 다양한 장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미스터리’와 ‘스릴러’, ‘추리소설’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순문학과 장르 문학의 구분은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 둘이 나뉘어 있다면 독자도 작가도 아예 처음부터 나뉘어 있을 텐데, 현재는 꼭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장르 문학은 대부분 소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장르 소설’이란 용어를 더 선호한다. 장르 소설은 일종의 규칙이며, 그 규칙은 독자와 작가가 함께 공유한다. 미스터리는 주로 추리소설이라고 불리는데, 특유의 규칙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장르가 있다. 스릴러는 특정 장르를 가리킨다기보다 독자에게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는 플롯의 작품을 뜻한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미스터리·추리소설·범죄소설·크라임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그 아래에 스릴러나 경찰 소설 등의 다양한 서브 장르가 위치한다.



윤영천 미스터리 애호가이자 독자, 기획자, 편집자, 저자. 1999년부터 나우누리 추리 문학 동호회 시습을 5년간 역임했고, 같은 해 ‘하우미스터리’라는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 현재까지 30년 넘게 운영하는 중이다. ‘decca’라는 닉네임과 본명으로 다양한 매체에 미스터리 관련 글을 기고했으며, 저서로 <미스터리 가이드북>, 공저로 <탐정사전>을 집필했다.

최근 <미스터리 가이드북>을 펴냈다.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미스터리 소설을 읽고 또 읽으면서, 늘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틀을 찾아왔던 것 같다. 그 틀만 찾는다면 과거의 작품을 해석하고 미래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발칙한(?) 생각을 했다. 국내에 소개된 미스터리 장르의 개론서와 가이드북은 거의 다 읽었는데, 대부분 외국 번역서여서 국내 시장을 반영한 책이 간절했다. 기존의 해외 개론서와 달리 국내에 출간된 소설을 위주로 소개함으로써 국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무엇보다 미스터리 장르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좋은 시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미스터리 소설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진화해왔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모르고 읽는다면 장르에 대한 이해가 좁아지거나,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 상당히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먼 길을 돌아왔다.

장서의 양은 얼마나 되고 책을 어떻게 분류해놓았는지 궁금하다.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책은? 대략 2000권 정도 있었는데 상당수 처분했고, 지금은 1000권 내외로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개인적인 독서 습관이 있다면 같은 나라의 작품은 연속해서 읽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일본 미스터리와 영어권 미스터리는 분량은 물론 묘사의 수준, 문장 등이 완전히 다르다. 가독성이 좋은 글만 읽다 보면 까다로운 글을 읽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서가의 책은 나라별로 분류해놓았다. 미스터리 소설 외의 책들은 공부를 위한 개론서나 인문 교양서다.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5% 미만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한 책은 ‘엘러리 퀸 컬렉션’이다. 이 시리즈의 기획자이자 편집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애착도 있지만, 분위기 때문에 표지 코팅을 일부러 안 한 책들이라서 물이라도 묻으면 큰일난다.

미스터리 소설의 매력은? 우선 장르 자체의 폭이 매우 넓다. 범죄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개인의 취향을 만족할 만한 책들이 어디엔가 반드시 존재한다. 순문학을 선호해도 이 장르 안에서 그 취향에 맞는 소설을 얼마든지 찾아 읽을 수 있다. 초기 미스터리는 재미와 지적인 자극에 치중했지만, 현재 미스터리 소설은 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미스터리 소설의 또 다른 매력은 시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1940년대를 이해하고 싶으면 1940년대 미스터리를, 1970년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시기에 나온 미스터리 소설을 읽으면 된다. 무엇보다 미스터리 장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 누구나 질서를 깨뜨리고 싶어 하며 누구나 질서를 되돌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누구나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 많은 책을 읽을 시간과 에너지는 어떻게 얻는지 궁금하다. 미스터리 소설의 편집자이자 기획자, 그리고 하우미스터리라는 사이트의 운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 읽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읽는다. 독자로서는 비평가적 시선으로 좋은 작품이나 아니냐를 생각하면서 읽고, 편집자로서는 트렌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10년 넘게 매일 신작과 해외 사이트 등을 체크하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시간이 많지 않아 주로 출퇴근 시간에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다. 정말 재미있고 좋은 책은 길을 걸으면서도 읽게 되는 책들이다.



1



2

우리나라 미스터리 소설 시장이나 마니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분위기와 전망은 어떤가? 미스터리 소설이라면 무조건 구매하는 절대 구매 독자는 500명 내외라고 생각한다. 현재 출판 시장 자체가 발전이 더딘 상황인 데다 장르 특유의 구조 때문인지(미스터리 소설은 되돌아가 다시 읽곤 하는데, 이를 웹소설 방식

식으로 읽고 싶어하는 독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웹 소설 쪽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근래 들어 국내 창작자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해외 수출이나 드라마 또는 영상 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윤교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작품이 영국 대거상 번역 추리소설상을 받으며 큰 이슈가 됐다.

우리나라에도 미스터리 문학의 등용문이라 할 만한 것이 있을까? 더불어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이나 작가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해외에서는 순문학과 장르문학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순문학 작가들이 해외의 장르 신에서 수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투고라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 우리나라에서 미스터리 작가로 인정받으려면 역시 상을 타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추리작가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 미스터리>의 신인상에 응모하거나, 문학동네의 엘릭시르에서 발행하는 미스터리 전문지 <미스테리아>의 공모전에 응모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 분야가 조금 다르지만 카카오페이지와 CJ ENM이 함께 진행하는 '추미스 소설 공모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연재 플랫폼 '브릿G(britg.kr)'에 미스터리, 스릴러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도 많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한국 작가는 에너지가 강렬한 작가들이다. 최근 <타오르는 마음>을 출간한 이두은 작가는 일본 하야카와 쇼보에서 전작 <시스터>를 번역해 출간한 적이 있고, 경찰 대상 잡지 <월간 수사연구>의 편집장 출신 이종관 작가의 <현장검증>은 해외 스릴러 못지않은 전문성과 기발함이 돋보인다.

요즘 미스터리 장르의 세계적 트렌드는 어떠한가? 길리언 플린 Gillian Flynn의 <나를 찾아줘>가 크게 성공한 이후, 영어권 시장은 비슷비슷한 작품들로 시장 쏠림이 일어났다. 근 10년 넘게 지속된 흐름이다. 이런 류의 작품은 대개 결혼을 파멸의 시작으로 설정하고, 이야기 주체가 대부분 여성이라서 '도메스틱 스릴러'나 '메리디스

1 한스미디어에서 출간한 윤영천 작가의 <미스터리 가이드북>. 2 국내 유일의 정식완역본인 검은숲 출판사의 '엘러리 퀸 컬렉션'. 세계 3대 미스터리 작품으로 꼽히는 <Y의 비극>이 포함되어 있다.

릴러'로 불린다. 1970년대 이후 스릴러는 언제나 최고의 상업성을 자랑하는 장르였고, 시대가 지나며 점점 더 개인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을 그려내고 있다. 최근 영어권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는 리안 모리아티 Liane Moriarty인 것 같다. 그의 작품은 40여 개 언어로 번역돼 10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연속해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미스터리 장르가 갖는 상업성을 최대한으로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미스터리 장르 소설 3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애거사 크리스티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살인극'이라는 찬사를 받는 작품. 애거사 크리스티가 생전에 가장 쓰기 힘들었던 작품 중 하나로 꼽혔을 만큼 구성과 심리 묘사가 치밀한 작품이다. 미스터리 황금기를 빛낸 수많은 작품 중 굳이 이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작품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범인이 함께 있는 닫힌 공간, 흔히 '클로즈드 서클'이라 불리는 형식은 현대 미스터리 장르에 큰 영향을 끼쳤다.



<황제의 코담뱃갑>, 존 디슨 카 미스터리 장르에 대한 강의가 있다면, 첫 수업에 추천하고 싶은 작품, 분량도 많지 않아서 부담 없고, 잔재주 없이 깔끔하게 구성된, 그야말로 모범적인 미스터리 소설이다. 악몽과도 같은 전남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브. 하지만 어느 늦은 밤 집요한 전남편과 침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약혼자의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대담하게 설치된 트릭이 결말을 뒤집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히가시노 게이고. 80여 편이 넘는 그의 작품 중 무엇을 읽을지 고민된다면, 당연히 <용의자 X의 헌신>이다. 물리학자 탐정 '유가와 마나부'가 활약하는 세 번째 작품이자 작가의 인생에 하나의 기점을 만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완전범죄를 꾸미는 용의자 X와 천재 물리학자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흥미진진하게, 또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CAFE JOURNEY

사람들은 일상적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이국적인 감성을 경험하기 위해 여행에 나선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하늘길은 막힌 지 오래. 잊힌 여행 감각을 깨워줄 카페 4곳을 찾았다.

글 한동은 기자 | 사진 김지은 기자

블루스의 영혼을 커피에 담다, 락떼스피릿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집기와 가구들, 무심하게 걸려 있는 블루스 스타들의 흑백사진, 유쾌한 벽화가 우리를 1970~1980년대 미국 미시시피주의 어느 블루스 클럽으로 데려간다. 비비 킹, 하울링 울프 등 전설적 블루스 뮤지션들의 음악에 어깨춤이 절로 나는 망원동 '락떼스피릿'의 이야기다. 홍대 인근에서 10여 년간 DJ로 활동한 정시영 대표가 자신이 사랑하는 블루스 음악에 어울리는 공간을 가꿔 선보인 곳이다. 최소 50년이 넘었다는 의자와 테이블은 물론 전화와 조명 심지어 문짝까지 영국에서 공수해왔다고. 옛 음악을 틀면서 현대의 물건을 둘 수 없다는 정 대표의 말에 그의 감각과 고집이 엿보인다. 독보적인 분위기 덕에 대만과 부산 등지에서 이곳을 따라 하는 카페들이 등장하는 듯이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제공하는 커피는 고소한 '락 블렌드'와 산미 있는 '스피릿 블렌드' 중 고를 수 있다. 단골을 부르는 '비엔나닐라'는 라테 위에 바닐라 크림이 올라간다. 꾸덕하고 진한 바닐라크림을 음미하다 보면 시원하고 진한 라테가 입안을 채워주는 시그너처 메뉴다. 깔끔한 라테와 담백한 연유 롤케이크를 세트로 판매하는 '락앤롤' 역시 인기다. 커피를 마시며 손님들이 춤을 찾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락떼스피릿은 오늘도 라테에 영혼을 갈아 넣는다.



주소 마포구 회우정로20길 65
영업시간 수~일요일 낮 12시~오후 9시,
월~화요일 휴무
문의 0507-1355-5699

1 설탕이 아닌 연유를 주재료로 만들어 부드럽고 담백한 롤케이크.
라테와 함께 '락앤롤' 세트로 판매한다.
2 라테 위에 바닐라 크림이 올라가는 시그너처 메뉴 '비엔나닐라'.



주소 중구 명동길 73 3층
 영업시간 월~토요일 오전 9시~
 오후 9시, 일요일 휴무(가오픈 중)
 문의 778-7779

- 1 에스프레소 위 크림에 소금을
 소량 뿌린 '카페 살레'.
- 2 이탈리아 현지 맛을
 느낄 수 있는 '에스프레소'.
- 3 껍질을 일일이 깎아 화이트
 발사믹 오일에 숙성한 토마토를 올린
 '토마토 매리네이드' 브루스케타.

성당 뷰 보며 에스프레소 한 잔, 몰또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

성당(두오모)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는 이탈리아에서 '성당 뷰'란 어느 동네를 가도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다. 명동성당이야말로 120년 역사를 지닌 서울의 두오모가 아닐까. 명동성당을 마치 이탈리아의 두오모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카페가 탄생했다. 바로 '몰또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 밀라노에서 35년간 거주한 김승현 대표가 이탈리아 주민들이 먹는 재료로 정성 들여 만든 브루스케타와 에스프레소 그리고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이탈리아 전통 디저트 '카논치니'를 선보인다. 시그니처 커피 메뉴, '카페 살레'는 에스프레소 샷에 크림을 올리고 약간의 소금을 가미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마니아층이 있는 독특한 커피인데 '단짠'의 매력이 한국 손님들을 매료시켰다.

이탈리아인들이 일상에서 마른 빵에 토마토, 치즈, 채소 등을 얹어 즐기는 브루스케타가 이곳의 주력 메뉴. 무려 12종의 다채로운 브루스케타를 판매하는데 특히 붉은 색감이 예쁜 '토마토 매리네이드' 브루스케타의 인기가 좋다. 토마토를 절이는 데 사용하는 올리브유와 발사믹 화이트 식초는 모두 이탈리아 풀리아(Pulia)에서 농부들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이들 제품은 매장에서 바로 구입도 가능하다. 천연 이탈리아 식재료 이외의 첨가물은 일절 첨가하지 않아 토마토 등의 건강한 식품을 자연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주소 마포구 월드컵로13길 55-24
영업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10시
문의 0507-1345-0473

- 1 부담스럽지 않은 산미와 탄닌감이 조화로운 내추럴 로제 와인 '니시아'.
- 2 바게트를 달걀물에 담가 반나절 숙성시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을 구현해낸 '프렌치토스트'.



프랑스 감성이 숨 쉬는 집, 레스피레

망원동 골목에 유럽으로 통하는 와인색 문이 있다. 프랑스 시골 마을에 있을 법한 고성을 상상하며 기획한 '레스피레'는 커피와 간단한 프랑스 요리 그리고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기획팀 출신의 이시우 대표는 연남동 스페셜티 전문 카페 '빈포데스크'를 거쳐 지난 7월, 레스피레의 문을 열었다. 프랑스어로 '숨 쉬다'를 뜻하는 카페의 이름은 비단 이곳이 바쁜 일상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빈티지한 느낌을 위해 시멘트를 퍼 바른 듯한 질감의 베이지 톤 천연 미장재로 벽을 채웠는데, 마치 황토처럼 숨 쉬기 편안한 친환경 소재라고. 이 대표는 2층짜리 주택이던 곳의 슬래브를 뚫어 계단으로 연결되는 2개의 공간을 만들었다. 입구를 중심으로 아래층에는 메뉴를 주문하고 베이커리를 고를 수 있는 공간과 프라이빗 와인 테이블을 마련했다. 위층의 더 많은 테이블에서 편안하게 공간을 즐길 수 있다. 모네의 정원을 콘셉트로 꾸민 창가 자리는 새장과 빈티지 문 등 이국적인 소품을 배치해 색다른 인상을 전한다. 레스피레는 앞으로 바게트를 주재료로 다양한 변주를 시도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9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프렌치토스트는 바게트를 달걀물에 반나절 동안 숙성해 바삭한 겉과 속 끝까지 촉촉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메뉴. 계절 과일과 하몽을 얹어 마무리했다. 적당한 산미와 부드러운 탄닌의 조화가 느껴지는 내추럴 로제 와인 '니시아'를 곁들이며 서울의 작은 프랑스를 느껴보자.

도쿄의 시간을 나누다, 공유

골목 사이사이 보물 같은 카페가 숨어 있는 도쿄의 요요기 공원은 카페 투어를 사랑하는 관광객이라면 꼭 찾는 동네다. 조용한 보문동 골목에 J-팝이 흘러나오는 작은 요요기 공원이 등장했다. 일본어가 써 있는 표지판과 붉은 자전거가 도쿄의 향수를 불러오는 이곳은 카페 ‘공유Kyou-yuu’. 일본에 거주하며 의류 관련 일을 하던 두 친구, 이대권·이연석 대표가 좋아하는 커피와 의류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공간이다. 이연석 대표는 낯선 타지 생활 중 카페에서만 은 온전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었고, 서울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한다. “도쿄 카페에서의 이국적이지만 편안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카페에 마련한 잡지 <뽀빠이>, <브루터스>를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이 많아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8월 가오폰을 시작한 공유는 현재 드립 커피로 운영 중이며, 곧 커피머신이 들어오면 정식 오픈을 시작할 계획이다. 레모네이드와 커피를 조합해 실론 티처럼 상큼한 홍차 뷔앙스의 ‘레모니카노’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다. 일본 시장에서 빙수를 담는 ‘가키고오리’ 컵에 음료를 내어주는 디테일이 인증 샷을 부르는 비결. 의류는 ‘준야 와타나베’나 ‘이세이 미야케’ 등 마니아들이 즐기는 브랜드 위주의 옷과 ‘포터’의 가방을 소개하며 계절에 맞게 디스플레이를 변경한다. 커피와 의류를 통해 도쿄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소 성북구 보문로18길 10

영업시간 일~목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
금~토요일 오전 11시~오후 9시(가오폰 중)
문의 0507-1432-5662

1 공유는 음료를 시키면 약간의
계절 과일을 함께 내어준다.

컵은 일본에서 빙수를 담아 먹는 가키고오리 컵.

2 상큼한 홍차 뷔앙스의 ‘레모니카노’.



DESIGN SPOT

#오늘의숨 #디자인스팟

디자인 스팟은 <럭셔리>, <럭셔리M>, <디자인>, <행복이 가득한 집>, <스타일 H> 등을 발행하는 디자인하우스의 에디터와 마케터가 선별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상업 공간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플래그십 스토어, 편집매장 등 콘셉트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모아 각 매체의 지면과 SNS를 통해 소개합니다. 디자인 스팟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 (@designspot.dh)과 네이버 포스트(c11.kr/designspo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RGOT ROBBIE

CHANEL

J12

IT'S ALL ABOUT SECONDS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견고한 세라믹 워치. 스위스 메이드. 보증기간 5년.